

NEWS & NEWS

치과전문의제도 관계 법령 개정위원회

치과전문의제도 관계 법령 개정위원회(이하 법개위)는 지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법개위는 1차기관의 전문치과진료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전문의의 수는 당해 졸업생 15% 내외의 소수로 배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반치과의사는 10년 이상 치과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총4백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기로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진료과목 표방금지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 방법, 수련기관 인정, 전문치과진료과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협회장, 매경 TV 인터뷰

이기택 협회장은 지난 12월 21일 매일경제 TV 프로그램인 메디컬 센터의 메디컬 포커스에 출연했다.

이협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강보건법 제정과 국립치과대학병원의 독립법인화 및 외국치대 졸업생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치과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한국 치과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치아우식증, 10대 중점관리 대상이 최종 선택

치아우식증이 정부의 10대 국가보건 중점관리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회의는 당정협의안에서 치아우식증, 간염, 치매, 결핵, 자궁경부암, 고혈압, 당뇨병, 정신분열증, 신증권증, 영유아 건강증진 등을 10대 국가보건 중점관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가칭)21세기국민건강위원회를 구성, 이들 질병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키로 했다.